

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 6. 19.(수) 화성시 전곡항에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9일(수)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되었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쥬(劉新中)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황수미 (044-200-5571)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책임자	과 장	강수경 (051-720-2270)
		담당자	연구사	김종진 (051-720-2287)